

숨바꼭질하다 잠든 소년, 3,220km 떨어진 타국에서 발견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다 깜빡 잠이 든 소년이 무려 6일 후 3,220km 떨어진 타국에서 발견됐다.

최근 영국 일간지 테일리메일에 따르면, 파힘이라는 이름의 15세 방글라데시 소년은 지난 달 11일 항만도시인 치타공에서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던 중 선적 대기 중이던 컨테이너에 몸을 숨겼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그런데 소년이 잠에서 깨기 전에 그 컨테이너는 배에 실렸고 소년은 '실종' 된 지 6일이 지난 후인 17일, 말레이시아 클랑항에서 항만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항만 직원이 컨테이너를 내립 준비를 하던 중 내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고, 곧장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경찰이 촬영한 영상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 숨바꼭질하다 잠들어 3,220km 떨어진 타국에서 발견된 파힘. 사진=twitter(Mike Rotchburns) 캡처

컨테이너에서 힘없이 걸어 나오는 소년의 모습을 담고 있다. 당시 탈수 증상이 확인되었으며, 말레이시아어를 모르는 소년은 모국어(방글라데시어)로 도움을 요청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당초 이 소년이 인신매매의 피해 소년일 수 있다고 추측했지만, 이후 방글라데시어 통역사를 불러 자세한 사정을 들을 수 있었다.

당국은 "컨테이너에서 소년을 발견했을 당시 밭밭 증상이 있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다. 탈수 증상을 보였지만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면서 "이민국 직원들이 소년을 보호하고 있으며, 곧 태고 왔던 컨테이너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치기에 밀려 구매한 복권 당첨된 남성

자신을 새치기한 남성에게 복권 구매를 양보한 뒤 구매한 복권에 당첨된, 억세게 운 좋은 남성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30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사흘 전 플로리다주에 사는 스텤판 노즈 에스피노자(43)는 한 식료품점에서 즉석 복권을 구입하려고 줄을 섰다가 새치기를 당하고 구매한 복권으로 100만 달러에 당첨됐다.

에스피노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남성이 내 앞으로 끼어들더니 내가 사려던 것과 동일한 복권을 구매했다."며 "화가 났으나 그날 유독 피곤했던 탓에 참고 카운터에서 복권을 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별 생각 없이 복권을 긁어보니 100만 달러에



▲ 새치기당한 직후 구입한 복권으로 100만 달러에 당첨된 스텤판 에스피노자(오른쪽). 사진=플로리다 복권국

당첨돼 너무 놀랐다."면서 "곧 장 차를 몰고 복권 본사로 달려갔다. 본사에서 당첨 사실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행운을 실감했다. 당첨금으로 가족과 함께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스피노자는 세금을 제외하고 82만8,000달러를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복권의 100만 달러 당첨 확률은 26만 7,739분의 1로, 장당 5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한편 에스피노자가 당첨된 복권을 판매한 플로리다 복권 회사는 "만약 인내심만으로는 결실을 보지 못한다 생각하고 있다면 그가 어떻게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는지 확인해 볼 것"이라며 해당 사연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하기도 했다.

'구독자 세계 1위' 유튜버, 1,000명 눈 수술 후원



▲ 수술받은 환자와 대화중인 '미스터 비스트'(왼쪽). 사진=유튜브(MrBeast) 캡처

구독자 수 세계 1위(1억3,000만명)의 개인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 (지미 도널드슨·25)가 시각장애인과 실명 위기에 처한 1,000명의 개인 수술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29일 CNN 등에 따르면 그는 최근 무료로 안과 수술을 후원하는 비영리 단체 '씨(SEE)인터내셔널'과의 협업을 통해 멕시코·온두라스·인도네시아·베트남·브라질·케냐·자메이카 등지에서 1,000명의 개인 수술을 후원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9월 미스터 비스트 측이 안과 의사 제프 레벤슨에게 전화를 걸면서 시작됐다. 레벤슨은 백내장으로 실명한 비보험 환자들에 '시력을 선물합니다(Gift of Sight)'라는 프로젝트로 20년 이상 무료 백내장 시술을 진행해 왔다.

그는 자신이 백내장 수술을 받고 나서 세상이 얼마나 밝고 아름다운지 알게 됐다면서, 전 세계에 백내장을 앓거나 실명한 이들을 위해 백내장 수술을 해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레벤슨은 수술이 필요하지만, 돈이 없는 이들의 명단을 추리기 위해 노숙자 보호소와 무료 진료소에 전화했고 이후 선정된 미국인 40여명의 개인 수술 집도를 맡았다. 수술 과정 등을 생생하게 담은 유튜브 영상은 이날 기준 3,2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미스터 비스트는 개인 수술뿐만 아니라, 일부 저소득층 참가자들엔 현금과 생활 물품 등을 지원해 감동을 자아내기도 했다.

Kyung Sook Yu, D.D.S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Free
임플란트 상담

크라운
(PFM)
\$500

잇몸치료
\$200 부터

틀니
\$1500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목 9am - 6pm



● 유경숙 치과

예당식당